

IMD 「세계경쟁력연감」으로 본 일본의 경쟁력*

* 이 자료는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3회에 걸쳐 발표한 『IMD「세계경쟁력연감」으로부터 본 일본의 경쟁력』(2018.8.2., 2018.9.11., 2018.9.19.)의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IMD세계경쟁력연감의 일본의 경쟁력 순위는 2000년대 이후 20위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2018년에 25위로 악화
- 분야별로는 특히 비즈니스 효율성면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의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의 의사결정항목을 많이 포함한 경영 프랙티스 분야의 순위가 악화하고 있음
- 일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서는 ①경제상황면에서 대내직접투자의 침체 계속, ②정부의 효율성면에서 재정상황과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환경정비의 부족, ③비즈니스의 효율성면에서 의사결정속도와 유연한 대응에 취약, ④인프라면에서 과학 인프라는 강하나 교육은 취약함 등을 들 수 있음

- 먼저 경쟁력의 종합순위와 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, 일본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의 강점과 약점을 제시함
 - 특히 일본의 중장기적인 과제로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 구조적인 약점을 파악, 선별하고 대처함으로써 생산성향상을 검토하는데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음

□ 경쟁력의 종합순위와 생산성관련 지표와의 상관

- 2018년판 IMD 세계경쟁력연감에서는 경쟁력종합순위와, 생산성관련지표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음
 - 이에 의하면 1인당 GDP, 피고용자 1인당 GDP, 피고용자시간당 노동생산성 중 어느 것도 경쟁력종합순위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(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)를 파악할 수 있음
 - 더욱이 경쟁력 종합순위의 구성항목에는 일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힌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음
 - 또 2018년 일본이 25위라고 하는 경쟁력종합순위는 생산성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근사치의 곡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음

- 2017년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에서는 2020년까지의 생산성 혁명·집중투자기간에 대담한 세제, 예산, 규제개혁 등의 정책을 총동원함으로써 일본의 생산성 향상을 과거 5년 평균치보다 2배 늘려 년 2%로 하는 목표가 제시되었음

□ 일본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의 강점과 약점

- IMD세계경쟁력연감의 일본의 종합순위는 2000년대 이후 20위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2018년에 25위로 악화(2017년은 26위), 종합 순위에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변동이 현저한 항목이 있음
 - 일본은 경쟁력 종합순위에서 1위와 15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, 독일과 같이 과학 인프라나 기술 인프라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음
- 이하에서는 4대 분류 및 소분류(대분류별 5개의 소분류, 계 20개의 소분류)에 의해 순위변동을 봄

□ 변화하는 일본의 분야별 경쟁력 : 악화일로의 비즈니스 효율성

- 대분류항목에서는 경제상황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순환적인 요소가 많은 점도 있어, 2000년대 이후는 10위대에서 30위대 후반까지 크게 변화하고 있음 (2018년에는 15위)
 - 정부의 효율성은 2011년의 50위 이후부터는 상승경향에 있으나 2018년도 40위로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생산성·효율성 및 경영관련 지표의 침체가 과장을 일으켰음
 - 인프라는 과학 인프라와 건강·환경 분야의 강점도 있어, 2000년대는 한자리 순위를 유지하고 2010년 이후도 10위대에서 추이하고 있음(2018년은 15위)
- 소분류항목별 순위의 추이를 보면, 경제상황 중에서는 무역과 물가가 활발하지 못함
 -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재정상황에 대한 낮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세정책이나 규제·법제 분야의 상황을 나타내는 비즈니스법제의 순위도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음
 - 비즈니스의 효율성면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의 의사결정 항목을 많이 포함한 경영 프랙티스 분야의 순위가 악화하고 있어 이것이 대분류인 비즈니스효율성 순위의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음

- 인프라에 대해서는 과학 인프라나 기술 인프라, 건강·환경 분야가 강하나 기초 인프라나 교육 분야는 정체되고 있음

□ 일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

○ 경제상황 : 대내직접투자의 침체 계속

- 경제상황은 경기에 좌우되는 순환적인 부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지만 구조적인 취약함도 있음
- 예를 들면 소분류항목인 국제투자 순위는 15위이며 최근 5년간 약간 상승경향에 있음
- 이에 관해서는 금융완화로 증가한 자금이 대외직접투자 확대로 이어진 점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한편, 동 소분류항목에 속하는 대내직접투자의 침체는 지속되고 있음(대내 직접투자잔고는 대GDP 비율이 63위로 최하위)
- 대내직접투자는 외국기업이 가진 기술과 각종 네트워크, 노하우 등의 흡수를 가능케 하는 지름길이며, 스펀오버의 원천이 되는 동시에 경쟁촉진을 통한 국내기업의 효율,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함
- 또한 대내직접투자가 적은 것은 일본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적은 것이 시사됨
- 게다가 정부의 효율성과 비즈니스효율성 분야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정비하는 것은 대내직접투자 증가에도 이어져 선순환을 가져옴

○ 정부의 효율성 : 재정상황과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환경정비가 과제

- 정부의 효율성 분야에서는 재정상황과 조세정책의 순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음
- 그 중에서도 법인세율(59위)과 재정압력으로 작용하는 고령화사회의 진전(55위), 재정적자대비 GDP비율(54위) 등이 특징임
- 또 규제·법제 분야에서는 제도적인 틀이나 비즈니스법제의 순위가 저하경향에 있어 신속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
- 개별항목에서는 특히 해외기업으로의 계약의 개방도(57위), 사업개시에 따른 필요한 절차수(55위), 해외투자가가 본 투자처로서 일본의 매력(51위)등,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간소함과 투명성 등에 일본이 취약함

○ 비즈니스의 효율성 : 의사결정속도와 유연한 대응에 취약

- 비즈니스의 효율성 분야에서는 소비자만족의 추구(1위), 종업원훈련의 충실도(6위), 비즈니스리더의 사회적 책임감(7위), 노사관계(8위)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
- 한편 소분류 경영 프랙티스의 구성요소인 신속한 의사결정(63위), 기회와 위협에 대한 대응(62위), 창업가정신(63위), 빅데이터 활용(56위)등, 많은 항목에서 순위가 최하위그룹에 있으며, 최근 5년간 경영 프랙티스의 순위는 2014년의 16위에서 45위로 크게 저하되었음
- 나아가 소분류항목 생산성·효율성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의 활용에 의한 실적향상(52위), 노동시장에서 관리직의 국제경험(62위), 추진력·가치관에서 문화의 개방도(57위)등의 취약성이 주목되고 있음
- 늦은 의사결정과 유연성 결여의 문제를 디지털기술이나 빅데이터 활용촉진을 통하여 극복해나가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

○ 인프라 : 과학 인프라는 강하나 교육은 취약

- 대분류항목에서는 인프라의 순위가 가장 높음. 소분류항목에서는 기초적인 인프라(42위)는 고령화에 따른 종속인구비율이나 국산에너지 비율, 전력비용 등을 포함한 점도 있어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음(2014년의 25위에서 2018년에는 42위)
- 한편 과학 인프라(5위), 기술 인프라(13위)는 높은 수준을 유지, 건강과 환경(7위) 분야의 순위는 상승경향에 있음
- 개별항목에서는 환경 관련기술(1위)외에 R&D지출대비 GDP(3위), 특허수(1위) 등의 연구개발 관련은 세계에서 톱클래스이며, 고등교육달성도(7위)도 높음
- 한편 30위로 개선되지않고 있는 교육분야에서는 어학능력(61위), 경영교육(53위), 대학교육(45위)에 대한 평가가 낮은 점도 주목되고 있음
-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간 제휴, 충실한 생애교육에 의한 인재의 질적 개선 및 이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
□ 시사점

- 일본이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개발력에 강점이 있는데도, 이것이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,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보완적 조건인 비즈니스 환경 및 활용 방식,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시사됨
- 따라서 이점을 고려한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는 비즈니스하기 쉬운 환경정비, 과학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과 방향성의 검토 등 두 가지가 필요함
- 보완적 조건에 대해서는 특히 대내직접투자의 침체와 생산성 및 경쟁력의 정체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음
 - 투자처로서 매력도를 반영하는 대내직접투자는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에서는 높아짐
 - 대내직접투자를 통한 스피로버 효과가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내직접투자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음
- 대내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, ①시장규모, ②과학기술 인프라, ③제도적 요인(규제, 세제)를 포함한 비즈니스 코스트, ④지리 및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요인이 중요함
- 이 중 일본은 ①과 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으나 「제도적 요인을 포함한 비즈니스 코스트」와 「지리 및 언어를 포함한 문화적 요인」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
-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여 ①과 ②가 열세에 있는 만큼,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코스트의 절감노력과 함께, 특히 과학기술 인프라에 주력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. 